

금호그룹, 박찬구 석유화학 회장 해임

박삼구 그룹회장도 경영일선 퇴진 ... 박찬법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격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화학부문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전격 퇴임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7월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2선으로 물러나고, 박찬구 회장도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항공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법 부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격 추대됐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창업회장의 3남과 4남이며, 박찬법 항공부문 부회장은 그룹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전문경영인이다.

금호그룹은 최고경영층이 오너 일가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7월28일 오전 그룹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주주-가계 협의내용을 토대로 박찬법 항공부문 부회장을 5대 그룹회장으로 추대하고, 박삼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박삼구 회장은 “그동안 4형제 가계는 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해 균등출자하고 그룹회장을 추대해 결속했지만, 최근 박찬구 회장이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그룹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룹 발전과 장래를 위해 해임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구 회장은 최근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대폭 늘려 금호가(家)의 대주주 지분 균등비율을 깨뜨려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동생인 화학부문 회장을 해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그룹에 대한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종식시키고,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그룹 총수가 본인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경영 2선 후퇴를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8>